

**원**한경(元漢慶, Horace Horton Underwood, 1890~1951)은 처음으로 한국 배의 역사를 한권의 책으로 쓴 과학사학자로 기억될 만하다. 1934년 나온 그의 '한국의 배와 선박(Korean Boats and Ships)'은 본문 99쪽에 51개의 사진과 그림이 있는 그다지 분량이 많지 않은 책이다. 지금이야 우리 배의 역사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그 후 역사가들의 연구 덕택이다.

글\_ 박성래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  
parkstar@unitel.co.kr

특히 몇 년 전 작고한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교수 김재근(金在瑾)은 평생 우리 배의 역사에 많은 연구를 거듭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1934년이란 시점에서 보자면 언더우드의 이 연구가 가장 첨단 지식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그는 영어가 자기 모국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 책을 썼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영어로 쓴 책으로는 지금도 이 책을 뛰어넘는 한국 선박의 역사책은 없는 셈이다.

## 벽안(碧眼)의 과학사학자

# 원한경



원한경이 '철갑선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거북선의 모형



원한경은 한국의 배를 저술하면서 이순신 장군(영정)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의 원래 이름은 언더우드다. 그는 오늘의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선교사 언더우드의 첫아들로 언더우드 2세인 셈이다. 한국에서 살았던 4대에 걸친 언더우드의 이름을 모두 소개하자면 원두우(元杜尤, 1대, 1859~1916), 원한경(元漢慶, 2대, 1890~1951), 원일한(元一漢, 3대, ?~2004), 원한광(元漢光, 4대, 1943~)이다. 원한경의 이름(Horace Horton Underwood)에는 가운데에 그의 어머니의 성이 들어 있다. 이 집안의 이름 짓기는 아주 특이하다. 영어 이름을 보면, 4대가 똑같은 첫 이름(Horace)과 성(Underwood)을 갖고 있고, 가운데 이름도 1세와 3세는 Grant, 2세와 4세는 Horton으로 똑같다. 이들 4대에 걸친 언더우드 일가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난다하여 지난 5월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제 한국에서의 할 일이 없게 되었다는 4대 언더우드의 설명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서운한 느낌을 준다.

오늘의 주인공 2대 언더우드, 즉 원한경은 1890년 9월 6일 서울 정동에서 태어

났다. 1대 원두우의 장남이다. 장남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 그에게는 동생도 있었으나, 장가들기 전인 21세에 죽었고, 그 다음 동생은 태어나자 바로 죽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릴리아스)가 사망했다. 말하자면 그는 언더우드 1세의 외아들인 셈이다. 그의 어머니 릴리아스 호튼(?~1921)은 1888년 선교 의사로 조선에 입국했다가 다음해 언더우드와 결혼했는데, 민비의 주치의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대 언더우드로 태어나 한국과 인연

16세 때 원한경은 프랑스와 스위스 등에 유학하여 1년 동안 공부하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공부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한 날에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해 그의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원한경은 1912년 9월 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돌아왔다. 돌아온 그는 아버지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敬新)학교에서 영어와 역사를 가르쳤다.

이 때만해도 그는 아직 한국의 과학사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인 언더우드 1세야말로 조선 최초의 과학 선생이었다. 장로교 선교사로 1885년 4월 조선에 온 1세 언더우드는 이미 미국에서 의학 교육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조선 최초의 서양 의사 알렌의 조수를 했다. 그는 이후 알렌이 열었던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濟衆院)에서 물리학과 화학을 가르쳤다. 보기에 따라서는 언더우드 1세야말로 한국 최초의 물리 및 화학 교사였다 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이 집안의 내력 역시 기술의 역사에도 약간 관련이 있다. 바로 1세 언더우드의

형은 미국의 유명한 타자기회사 주인이어서 커다란 부자가 되었고, 뒤에 자신의 동생을 도와 연희전문학교 설립에 든든한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기도 한다.

이런 배경을 가진 원한경이었지만, 막상 그 자신이 과학기술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아버지도 이미 관심있었던 한국의 배에 대해 나름의 관심을 갖고 연구했을 뿐이다.

그의 책 '한국의 배와 선박'에는 그의 아들 원일한(3세)의 머리말이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2세)와 함께 서해안을 항해한 기억이 있으며, 그럴 때 원한경은 조선의 배에 큰 관심을 보이며, 뱃사람들과 대화하며 정보를 수집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또 이런 기회에 그는 사진도 찍고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자연히 이런 과정에서 그는 또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배와 관련된 대목인 이순신(李舜臣)과 거북선에 대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회고다.

### '한국의 배와 선박' 저술

이 책은 원래 영국왕립아시아학회(Royal Asiatic Society) 조선지부(Korea Branch) 보고서로 1934년 출간되었는데, 1979년 연세대에서 다시 복사판을 냈는데, 이 머리말은 1979년 복사판에 실려 있다. 70년 전 이 책을 출간한 영국왕립아시아학회는 중국지부, 한국지부 등이 따로 있었는데, 당시 중국이나 한국에 살던 서양인들에게 대단한 학술기관 역할을 했던 기구였다. 지금도 그 명맥은 유지되고 있지만, 옛날 같이 큰 몫을 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한경은 이 책의 첫머리에 당시까지 서양 사람들이 조선의 배에 대해 잘못 기

록한 것이 많다면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다. 어떤 사람은 한국 해안에 조석(潮汐)이 하루 세 번 있다고 잘못 써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어느 책에 그런 잘못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은 조선의 바다 배는 강 배의 확대판에 불과하다고 쓰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심지어 그리피스(Griffis)는 이순신을 중국 사람으로 기록했다고도 지적한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의 배를 강 배와 바다 배로 나눠 설명을 시작한다. 또 그는 이 책을 쓰면서 함께 연희전문에 있던 정인보(鄭寅普), 백낙준(白樂濬), 백남운(白南雲) 등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그는 당시 '이순신'이란 소설을 쓴 이광수(李光洙)에 대해서도 두어 차례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광수의 소설이 더 정확한 곳이 많다고 지적한다. 이광수는 그의 작품을 쓰면서 '충무공전서(忠武公全書)'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1796년에 나온 이 책은 시문(詩文) 투성이일 뿐 실제로 중요한 정보는 들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는 조선의 배에 대해 그 종류도 소개하고, 만드는 과정도 설명한다. 또한 배에 얽힌 민속과 제사 등도 소개했다. 배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문헌 기록을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 특히 고려초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중국 송나라의 사신 서궁(徐兢)의 여행 기록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배와 항해술에 관한 부분은 전문을 영어로 번역해 책 뒤에 붙여 놓았다. 1124년 고려에 사신으로 왔던 서궁은 이 책에서 그가 고려를 방문하러 황해를 항해할 때 나침반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중국 역사상 나침반 사용이 처음으로 기록에 남게 된 경우다. 그런데

그 전후의 전통 시대 우리 역사에서는 이 밖에는 전혀 나침반 사용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을 원한경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나침반 사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 특히 중국과 일본은 나침반 사용 기록이 분명한데, 조선에서는 그런 기록이 왜 없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순신의 일기 가운데 보이는 침로(針路)란 말이 바로 "나침반이 가리키는 길"이란 뜻일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자신의 아들(J. T. Underwood)을 시켜 영어로 번역한 한국의 뱃노래를 한 편 실어 놓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 분명히 나침반을 사용하는 듯한 내용이 보인다. 사실 창피한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한국 역사에서 나침반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거북선의 '철갑선' 여부에 큰 관심 보여

특히 그는 거북선과 이순신을 깊은 애정을 갖고 소개한다. 거북선은 이미 1414년에 기록이 보이므로 이순신의 순수한 발명은 아니지만, 임진란 때 거북선은 위대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그는 평가한다. 원한경은 거북선이 잠수함이라 오해하는 기록도 있음을 소개하고, 그것이 잠수함은 아니었음을 말한다. 하지만 거북선은 속도와 크기가 당시 다른 배보다 출중했고, 게다가 배 위를 덮어 적군의 접근을 차단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거북선이 철갑선이었던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거북선은 쇠로 덮여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는 확실한 증거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원한경은 소개

한다.

특히 당시 연희전문 교수로 함께 있었던 한국학의 권위 정인보가 그런 기록을 본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기록해 놓고 있다. 또 흥미로운 다른 기록으로는 대원군이 서양 배처럼 철갑선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고종 때 이미 그런 배를 만들어 낸 일이 있지만, 그 배는 무거워서 물 위에 뜨지 않았다는 증언도 소개하고 있다. 원한경은 이 책에서 거북선이 철갑선이었던가 아니었던가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그 가능성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겠다. 이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912년 귀국, 경신학교에서 영어와 역사를 가르치던 그는 경신학교에 대학부가 생기고 그것이 곧 연희전문학교로 탈바꿈하면서 연희로 자리를 옮긴다. 1933년 원한경은 연희전문 제3대 교장이 되었고, 이 무렵 왕립아시아 학회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바로 이 시기에 그의 배에 대한 연구가 이 학회지 한 권을 차지하며 1934년에 발표된 것이다.

거의 평생을 한국에서 살았던 그는 일제 말기인 1943년 6월 억지로 미국에 돌아갔지만, 전쟁이 끝나자 바로 1945년 10월 해방 조선에 돌아왔다. 미군정청의 문교 고문을 맡고, 연희전문에 명예 총장으로서 이 학교를 정식 대학교로 만들기 위해 힘썼다. 또 왕립아시아학회를 다시 시작하기도 했던 그에게 1949년 3월 뜻밖의 비극이 찾아 오기도 했으니, 그의 아내 엘터 여사가 폭도의 흉탄에 쓰러진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51년 2월 20일 원한경은 심장 질환으로 피난지 부산 초량리의 집에서 작고했다. ㉔